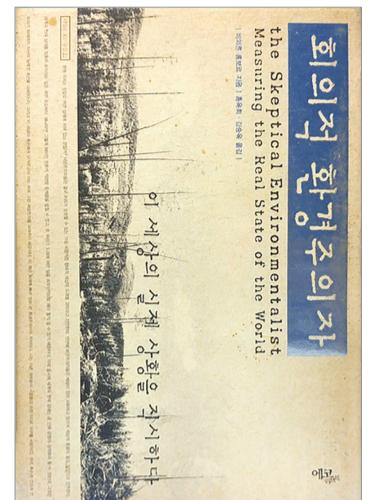


## 12 비전공자에게 권하는 전공 도서③『회의적 환경주의자』



비외른 롬보르는 기존의 환경 비관론과 미래 종말론을 지적하고 환경적 낙관론을 제시한다.

(사진=픽사베이)



이 책은 환경 정책 결정에 대한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되는 환경호르몬의 양이 얼마이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축적되면 나쁜 효과가 발현되는지 따져보고 일상적으로 먹는 정도가 문제가 되는지를 합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문제시하는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굴뚝에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우리는 무조건 환경오염이라 여긴다. 이 과정에서 자정능력을 떠올리지 않는다.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오염 물질의 배출이 환경오염이지 그 이하는 환경오염이 아니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다. 과연 우리는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것일까?

비외른 롬보르는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교 정치학과의 통계학 담당 교수이다. 그는 환경주의자였다. 환경운동을 비판한 논문을 반박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던 중 자신의 환경 관이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 이 책을 집필한 이유였다.

이 책은 환경적 비관론의 유포, 인류의 복지, 기대수명, 식량문제, 인류의 번영, 삼림과 에너지, 자원문제, 대기오염과 산성비, 유전자 조작 식품, 생물 다양성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담고 있다. 원문은 500쪽이 넘으며 번역본은 1000쪽이 넘는다. 참고문헌도 수천 건을 담고 있다.

이 책이 발간되었을 때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 분노는 사실과 논리에 기반한 반박이라기보다는 감성적 비아냥이었다. 롬보르 교수도 자신의 책이 출간되고 합리적 논쟁 대신에 무조건적 부정이라는 충동적 반응밖에 경험하지 못한 것에 놀랐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환경적 비관론이 대세가 된 현재의 상황에서 또 과학적 진리보다는 다수가 믿는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환경에서 환경적 낙관론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일단 부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자세이다. 그러나 감성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 책을 보고 이성적으로 따져보기를 바란다.

## 환경 문제를 논하는 또 다른 관점

정 범 진  
원자력공학과 교수

대학주보로부터 비전공자에게 권할 수 있는 '전공 도서'를 추천해 달라는 부탁에 당황스러웠다. 공대가 대부분 그렇듯이 전공 도서는 거의 전부 영문 원서이다. 수식과 그래프로 가득 찬 책을 비전공자에게 권한다는 것이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학이 서로를 초대하여 음식 대접을 하는 모습처럼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읽을 만한 것이어야 하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관련되면 더 좋을 것이고 한번 읽고 나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관점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생각 끝에 직접적으로 전공을 학습하기 위한 도서는 아니지만 전공 과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책을 소개하기로 하였다.

비외른 롬보르(Bjørn Lomborg)가 쓴 회의적 환경주의자(the Skeptical Environmentalist)를 소개한다. 이 책은 2001년 케임브리지 출판사가 출간하였고 2003년 에코 리브르에서 번역하여 출간하였다.

21세기의 과제는 3E라고 한다: 경제(Economy), 에너지(Environment), 환경(Environments). 명제(Lemma)가 두 개(Dilemma)여도 곤란한 지경인데 이런 트릴레마(Trilemma)의 상황이 21세기를 살아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다.

바야흐로 환경은 이 시대의 어느 부문에도 최우선적 과제로 여겨진다. 친환경이라고 하면 다소 비싸도 되고 재활용이라고 하면 불편도 감수한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지구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멸종하는 생물종은 증가하고 쓰레기의 처리는 인류의 난제가 되고 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버린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으로 흘러 들어갔다가 먹거리가 되어 식탁에 오른다.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유한한 지구는 늘어난 인류를 부양하느라 몸살을 앓는다. 자원 고갈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귀에 뭇이 박히도록 들은 뻔한 얘기이다.

그런데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면 우리의 수명은 왜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 의술의 발전이라고 대답하기도 하겠지만 과연 우리가 의술의 혜택을 그렇게 많이 입고 있는가? 1960년대 우리의 평균수명은 50세

가 채 되지 않았다. 지금은 80세가 되었다. 오히려 벌어놓은 것이 없는 데 죽지 않는 것을 걱정하기에 이르렀고 두뇌는 병들었는데 몸은 여전히 건강한 치매를 두려워해야 할 지경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환경이 더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중요한데 투입되어야 할 자원을 기꺼이 여기에 투입한다.

“

**환경적 비관론이  
주를 이루는 시대 속에서  
비외른 롬보르의 주장은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

상품의 가격은 투입된 자원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이다. 그런데 비싸다는 것은 자원의 투입이 더 많다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친환경이라는 말인가?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고 재배된 농작물은 면적당 소출이 많을 수가 없다. 결국 더 많은 숲을 경작으로 바꿔야 얻을 수 있는 식품이 어떻게 친환경 식품이라 부른다는 말인가? 친인간일지 모르나 친환경은 아니다.

석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오염물질을 걱정하는 시대이고 이 점은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석탄을 사용함으로써 인류는 주위의 숲을 유지할 수 있었다. 엄연히 실제 하는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두고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지를 따져보는 태도는 합리적이다. 숲을 태울 것인지 석탄을 태울 것인지. 그러나 석탄발전소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혹은 없었으면 좋겠는지를 묻는다면 그것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명제를 저버린 탁상적 질문일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분해되는 플라스틱이 나왔다면 우리는 반색을 한다. 그런데 그 플라스틱이 결국 천천히 연소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컵라면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었다면 우리는 당장 소비를 멈춘다. 한 그릇을 먹는데 인체에 축적